

# 김정희 관련 인장의 실증적 분석: 김정희 자각 인장을 중심으로

최준호

광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부 교수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eals Related to Kim Jeong-hui: Focusing on the Seal Engraved by Kim Jeong-hui

Joon-Ho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Fus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김정희와 관련된 인장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전각예술을 학술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자 했다. 인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김정희가 새긴 인장과 그와 관련된 인장 중 변관이 있는 인장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 분석했다. 인영이 아닌 실제 인장 연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인장 측면에 변관이 있는 경우 김정희가 직접 인장을 새긴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장의 석질, 사용된 필법, 장법, 도법 등의 확인이 가능했다. 수작업이 아닌 공구로 새긴 모각인장을 통해 불확실한 제작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모두 실제 인장을 분석했기에 가능한 연구 결과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고서화를 감정할 때 인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길 기원한다.

주제어 : 김정희, 전각예술, 인장, 인영, 변관, 모각인장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cademically redefine the art of seal engraving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seal analysis related to Kim Jeong-hui and to widely promote its excellence. Previous studies on seals were examined, and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the seals engraved by Kim Jeong-hui and the related seals. The importance of the real seal study, not the stamp, was confirmed. If there was a byeongwan on the side of the seal,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Kim Jeong-hui directly carved the seal. Also,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tone quality of the seal, the method of writing, the method of layout, and the method of holding graver. The imitation seal engraved with a tool rather than hand made it easy to grasp the uncertain production intent. All were analyzed by actual tensile, so it was a possible study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indicator to judge the authenticity of the seal when evaluating an ancient painting in the future.

Key Words : Kim Jeong-hui, art of seal engraving, seal, stamp, byeongwan, the imitation seal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Joon-Ho Choi(ds4bed@gwangju.ac.kr)

Received July 28, 2020

Revised August 27,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최근 중국 북경에서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란 전시가 열리며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재조명 받고 있다. 와중에도 그와 관련된 서화의 진위 시비는 계속되었다. 모든 작품의 진실은 실제 그 작품 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작품을 많이 보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고서화 진위 판단 시 필요한 근거는 시, 서, 화, 각, 재료, 기록, 기타 등 여러 요소가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진실 규명보다 복합적인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더러 있다. 고서화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유이다.

위에서 언급한 진위 판단 요소 중 쉬이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각(刻)이다. 서화 속에서는 인영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서화 속 인영의 진위 판단 전에 실제 인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영에 문체가 있으면 그 작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화에 찍은 실제 인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사자들은 인영의 유무만을 확인하게 된다. 김정희 관련 서화 연구에 비해 인장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세간에 김정희 관련 인장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사자들이 서화 진위 판단하듯 인장을 대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한다. 인장 역시 서화처럼 별개의 전각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김정희는 중국에서 익힌 실사구시적 금석학의 안목으로 조선 전각예술의 기초를 닦았다. 본인이 직접 인장을 새기기도 하면서 제자 오규일(吳圭一, 1800년 초 출생 추정)을 조선 최고 전각예술가로 배출했다[1]. 그런데도 김정희는 추사체의 대가로만 알려져 있고 그가 남긴 전각예술 업적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희와 관련된 실제 인장의 상호 연관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김정희 자각 인장을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인장 명칭을 학술적으로 구분했고, 전각예술이 독립예술 장르로서 가진 특성을 파악했으며, 인장의 진위 및 우열 판단 시 서화와 다른 기준과 특성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조선시대 전각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

## 2. 연구 배경 및 방법

### 2.1 일반 현황

인장은 인간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총칭이다. 일정한 표식으로 삼기 위해 돌, 금속, 나무, 도자 등에 이름 등 문구를 새겨 서화나 문서에 찍는 물건으로 도장이라 하기도 한다[2].

인장의 기원은 ‘BC 50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원시 농경사회에서 발명되었다’, ‘신석기시대 도자기에 문양과 도형을 새기면서 비롯되었다’ 등 여러 설이 있다. 이렇듯 새김의 흔적과 행위에서 출발한 인장은 인간의 징표 역할로써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인장의 실용적 사용단계’라 한다. 인장에 봉니(封泥, 문서를 봉한 노끈의 이름때에 찍은 진흙 인장)가 응용되면서 점차 예술성이 가미되었다. 명나라 문팽(文彭, 1498-1573) 같은 걸출한 전각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장은 서화예술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를 ‘인장의 예술적 사용단계’라 한다. 두 단계를 거치며 문인묵객과 호사자들의 인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장의 명칭도 시대에 따라 새(璽), 장(章), 인(印), 보(寶), 인장, 도장으로 불리다가 드디어 전각예술이란 장르로 자리 잡았다. 성명인, 명호인, 지명인, 길어인 등 인장의 종류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인부랑(印符郎)에서 관인을 관리했다. 조선시대 들어 관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해 관리했다. 상서원(尙瑞院)에서 관인을 관리했고 어보는 더 철저히 관리했다. 관인을 위조하는 경우 위조관율(僞造關律)에 의하여 극형으로 엄하게 벌했다. 사인은 고려 말에 사용이 늘었는데 조선시대 들어 문인묵객들이 서화에 사용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3].

급기야 추사 김정희가 조선에 중국의 금석전각을 뿌리 내리면서 서화가, 소장가, 감식가 등의 사인이 대거 등장했다. 바야흐로 조선시대 전각예술의 르네상스시대가 전개되었다.

### 2.2 연구방법

#### 2.2.1 인영 또는 인장 관련 연구

현재까지 인영 또는 인장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서화 속 인영 관련 연구이다. 이동천(2008)은 법의학자적 시각으로 작품의 재질, 필법, 기타 내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전하는 상당수 김정희 관련 서화가 위작이라고 감정하고 있다. 그 유형을 위작, 변종위작, 진위혼작, 진작으로 구분하는 등 인영보다 서화 분석에 집중했다[4]. 서방달(2008)은 ‘작가와 소장자들이 민

음을 위해 서화에 인장을 사용했으므로, 서화 속 인영은 작가의 것과 감장가의 것으로 나뉜다'며 '인영의 인문(印文), 인형(印形), 인질(印質), 인색(印色)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5].

다음은 모각 관련 연구이다. 한천형(2003)은 '전각의 학습 방법으로 임모(臨摹), 모인(摹印), 임인(臨印)이 있다'고 제시했다[6].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장과 인영을 보며 그대로 새기는 것으로, 전각의 옛 법도를 익혀 창의적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학습법이다. 그 예로 중국 명나라 조환광(趙宦光, 1559-1625)이 옛 인장 2천여 방을 모각했기에 그의 전각작품의 인영을 모아 <조범부선생인보(趙凡夫先生印譜)>를 완성할 수 있었다[7]. 이렇듯 모각은 예로부터 공인된 전각 학습법이였다.

마지막으로 인장 연구 방법의 제시이다. 최준호(1992)는 실제 인장, 서화 속 인영, 모각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기 위한 근거 지표로 전각의 삼 요소 필법(筆法), 장법(章法), 도법(刀法)을 제시했다. 즉 인문의 필체, 인문의 배치법, 전각도의 운도법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8].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실제 인장을 분석한 경우에 비해 서화 속 인영을 연구한 경우가 더 많았다. 공인된 학습법인 모각의 경우 전각예술의 특이성을 반증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 2.2.2 실제 인장 관련 연구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모각이 전각예술의 공인 학습법이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비록 모각이지만 국가 중요 유물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다.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모각 인장이다. 1904년 궁궐 내 화재로 보소당의 인장이 소실되자 고종(재위: 1863-1907)이 전문 전각가들에게 복제를 지시해 지금에 이르렀다[9]. 모각일지라도 실제 인장의 사료적 가치가 지대함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대만 왕북악(王北岳, 1926-2006) 교수는 인장의 진위를 논하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째, 당시 인장 관련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전각가 문패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인뉴(印紐, 인장 손잡이)를 새긴 인장이 없다. 둘째, 전각가의 인풍(印風)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변관의 유무와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인문의 복제는 쉬워도 변관의 복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인장의 석질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파림석(巴林石)의 경우 1971년 이후 내몽고에서 출토되기 시작했다. 다섯째, 기타 전각 관련 자료를 십분 참고해야 한다[10]."

위 내용 중 '인문의 복제는 쉬워도 변관의 복제는 어렵

다'는 대목을 본 논문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했다.

### 2.2.3 김정희 자각(自刻) 관련 연구

'김정희가 실제로 각을 했을까' 하는 문제는 학계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런데 Fig. 1에서 보듯이 김정희가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인장을 새겨 보낸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연일 바람이 매서운데 문을 닫고 조용히 지내는 것도 형편에 따라서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 제가 새긴 인장 몇 과를 보냅니다. (...) 간편함을 향해 바라며 겸허하게 [올립니다].(連日風威 閉戶習靜 此亦一隨境消受法 (...) 拙印茲以數三顆打呈耳 (...) 恕便冲)'이다[11].



Fig. 1. Kim Jeong-hui's Letter(25.8×39.6cm, Private Collection)

원문 중 '拙印'으로 김정희가 인장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閉戶'는 '세속을 멀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마지막 '서편충(恕便冲)'은 김정희가 편지 끝에 이름이나 명호 대신 자주 쓰는 문구(후미어)인데 주로 초의선사 등 가까운 지인에게 많이 썼다.

김정희의 자각 사실이 확인된 이 편지의 조선 전각사적 의미는 실로 지대하다.

### 2.2.4 김정희와 금강산 관련 연구

연구 대상 인장의 변관에 '금강산'이란 문구가 등장하기에 김정희와 금강산은 중요한 변수이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초는 불만한 것이 없고 한갓 절에 폐단만 끼친다'면서 김정희가 금강산 신계루(神溪樓)에 시를 지어 걸었다는 내용이 있다[12]. 둘째, 젊은 시절 마하연의 울봉(栗峯) 스님과의 인연으로 그가 입적 후 '울봉영찬'이란 선시를 남겼다고 한다. 셋째, 이상수(李象秀,

1820-1882)의 기행문 <동행산수기(東行山水記)> 중 오심백탑기(誤尋百塔記)에 “김정희가 이상수에게 ‘금강의 백탑을 보았는가?’라고 물으며 ‘나도 소릿적에 애써 백탑을 찾다가 마침내 백탑을 찾았다’”는 내용도 전한다. 원문(일부)은 ‘過謁于秋史侍郎 問至金剛 見百塔耶 對以所遇 曰其刻字 殊誤人 寧足據之以求百塔 僕 少時至此 冥搜險覓 乃得此石’이다[13].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 김정희의 금강산행이 확인되었다. 김정희는 평소 금강산을 동경해 소봉래(小蓬萊) 관련 명호를 쓰기도 했다.

### 3. 인장의 실증적 분석

김정희 관련 인장에 새겨진 변관(邊款)의 유무에 따라 유변관과 무변관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변관은 인장의 측면에 새긴 글자 또는 문양으로 서화의 화제와 같다. 변관의 종류는 제작일, 제작자의 성명과 명호를 새긴 단관(單款), 사용자의 성명을 새긴 쌍관(雙款), 긴 시나 문구를 덧붙인 장관(長款), 인장 관련 글을 따로 새긴 인발(印跋) 등으로 다양하다[14]. 보물로 지정된 김정희종가 전래인장 중 변관이 있는 것은 몇 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관은 인장의 진위 또는 우열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이다. 참고로 Fig. 2의 ‘B-1’은 영남대박물관 소장품이고, ‘C-5’는 김정희종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했고, ‘D’는 실제 인장이 없으며, 그 외 인장은 개인 소장품이다.

#### 3.1 유변관 인장

##### 3.1.1 <완당예고(阮堂隸古)>

Fig. 2의 ‘A’ <완당예고>는 제자 오규일이 김정희의 서법철학을 이어받아 새긴 대형 인장이다. 크기면, 형태면, 예술성에 있어서 조선 전각예술의 우수성을 알려 주는 걸작이다. Fig. 3의 ‘A-1’에서 보듯이 이 인장에 크고 힘차게 새겨진 변관 오규일뉴전근각(吳圭一鈕篆謹刻, Fig. 3의 ‘A-1’ 참고)은 유변관 인장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타낸다[1].

##### 3.1.2 <염(髯)>

Fig. 2의 ‘B-1’ <염>의 경우가 문제의 인장이다. 인장에 새겨진 두 개의 변관(Fig. 3의 ‘B-1-1’)으로 인해 누가 이 인장을 새겼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관을 분석했다. 첫째, 두 변관의 필법이다. 붓으로 행서를 쓰듯이 능수능란한 운도법으로 유려하게 새겼다. 두 필체도 비슷하다. 둘째, 변관 내용이다. Fig. 3

‘B-1-1’의 좌측 ‘秋史手刻’은 ‘추사(김정희)가 손으로 직접 새겼다’이고, 우측 ‘怡堂寶刀’는 ‘이당(조면호)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조면호(趙冕鎬, 1803-1887)는 김정희의 제자이자 생질서이다. 이렇듯 한 인장에 다른 작가의 변관이 있는 경우가 전각예술의 특성이기도 하다. 셋째, 두 변관의 위치이다. Fig. 3의 ‘B-1-1’에서 보듯이 ‘秋史手刻’의 위치가 높고 ‘怡堂寶刀’는 낮다. 이것으로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 이당이 먼저 어떤 인문을 새기고 변관 ‘怡堂寶刀’를 새겼는데, 훗날 추사가 인장 밑면을 갈아 없앤 뒤 현재 인문 ‘髯’을 새기고 변관 ‘秋史手刻’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이당이 현재 인문 ‘髯’을 새기고 변관 ‘怡堂寶刀’를 새겼는데, 훗날 이당 또는 타인이 변관에 추가로 ‘秋史手刻’을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한 인장에 전혀 다른 두 변관의 필법·내용·위치로 인해, 김정희가 이 인장을 새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Fig. 2 ‘C-5’의 김정희종가 전래인장 <염>(보물 547호)에는 변관이 없다[15]. 또한 오세창(吳世昌)이 조선 초기부터 광복 이전의 인영을 집대성한 <근역인수(權域印數)> 김정희 편에 Fig. 2의 ‘B-1’은 실려 있으나 ‘C-5’는 실려 있지 않다[16]. 김정희와 절친했던 권돈인(權敦仁, 1783-1859) 역시 명호 ‘髯’을 썼다. 이런 점이 인장 및 인영의 진위나 우열 판단 시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 3.1.3 <길상여의관(吉祥如意館)>

Fig. 2의 ‘B-2’ <길상여의관>에 김정희가 새겼다는 변관이 있다. 이 인장을 분석했다.

첫째, 나뭇잎 모양의 계격(界格, 구분경계선)을 사용했다. 둘째, 필법이 모지기도 하고 등글기도 하다. 이는 김정희의 서법철학과 부합한다. 셋째, 도법은 충도법과 절도법을 혼용했다. 실제 인장을 직접 보고 분석한 결과이다. 넷째, Fig. 3의 ‘B-2-1’에 보듯이 변관에 새겨진 승련노인작(勝蓮老人作)을 통해 김정희가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승련노인은 ‘멋진 연꽃 같은 노인’이란 의미로 김정희가 지은 명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변관의 필체이다. 김정희가 변관에 전각도로 새긴 ‘勝蓮老人’과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 붓으로 쓴 ‘勝蓮老人’을 비교해보면 두 획의 운필이 매우 흡사하다.(Fig. 3의 ‘B-2-1’과 ‘B-2-a’ 참고) 여섯째, 석질이다. 인장을 시각해 본 결과 부드럽고 품질 좋은 전황석 계열의 연옥으로 사료되었다. 인장의 윤기와 닳아진 정도로 미루어 사용빈도가 많았음도 알 수 있다. 일곱째, 인장의 외형인데 인뉴에 조선 서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정자, 인물이 조각되어 있다.

Cate gories	Stamp	Appearance	Cate gories	Stamp	Appearance
A			B-3		
<阮堂隸古>(66×168×247mm, 12.8kg)			<長壽清神之居>(40×60×75mm, 181g)		
B-1			B-4		
<髯>(14×16×31mm, Unknown)			<阮堂>(60×67×100mm, 690g)		
B-2			C-1		
<吉祥如意館>(40×85×87mm, 435g)			<七十二鷗草堂>(56×83×77mm, 457g)		
C-2			E-1		
<小蓬萊學人, 三十六鷗主人, 烏山語畫樓>(53×86×166.5mm, 826g)			<龍丁>(∅40×117mm, 335g)		
C-3			E-2		
<遊於藝>(79×69×108mm, 1,134g)			<阮堂>(50×50×145mm, 844g)		
C-4			E-3		
<古嶠老人>(73×73×121mm, 1,448g)			<金正喜印>(50×51×79mm, 369g)		
C-5			E-4		
<髯>(14×14×39mm, Unknown)			<寶覃齋印>(48×47×71mm, 333g)		
D		None	E-5		
<龍丁>(∅33mm, Unknown)			<東國儒生>(48×48×72mm, 353g)		

Fig. 2. Stamp and Appearance of Each Seal





Fig. 3. Detailed Description of Each Work

\* Ex) 'B-2-1'→Detailed Description of 'B-2', 'B-2-a'→Detailed Description of Work Different from 'B-2'.  
The Source of 'B-3-b~e' is <Banryongcheonjinjanjinbo>.

### 3.1.4 <장수청신지거(長壽淸神之居)>

Fig. 2의 'B-3', 이 인장의 인문을 <청신지거장수>가 아닌 <장수청신지거>로 보았다. 김정희가 명작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에서 화제를 '우→좌'로 쓰는 등 과격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인장에 새겨진 변관은 '阮翁'이다. '완옹'은 김정희가 나이 들어 쓴 명호이다. Fig. 2의 'B-3'에서 보듯이 인장의 형태가 특이하고 인장의 석질, 인문의 장법과 필법, 인뉴에 새겨진 소나무·초당·인물이 Fig. 2의 'B-2'와 매우 흡사하다. 김정희가 변관에 전각도로 새긴 '阮翁'의 '阮'(Fig. 3의 'B-3-1' 아래), 서화 작품에 붓으로 쓴 '老阮題'의 '阮'(Fig. 3의 'B-3-a' 아래)의 필체 흐름이 비슷하다.

Fig. 3의 'B-3-b' <장수청신지거> 역시 김정희가 새긴 것으로 전한다. 변관은 '阮翁作'이고 인문의 장법과 필법이 Fig. 3의 'B-3-1'과 비슷하다. 같은 문구의 인장을 다른 장법으로 새긴 듯하다. Fig. 3의 'B-3-c'는 중국 스승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새겨 김정희에게 보냈다는 인장 <장수청신지거>로 변관은 '方綱'이다. 김정희가 전각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이다. 그리고 김정희가 새긴 것으로 전하는 <부용추수비린거(芙蓉秋水比隣居)>(Fig. 3의 'B-3-d')도 있다. 변관은 '阮翁'이다.

한편 변관에 '阮翁'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세간에서 중국 완원(阮元, 1764-1849)이 새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Fig. 3의 'B-3-e'는 완원이 새긴 인장 <유희서화(游戲書畫)>이다. 그런데 이 인장의 인문과 변관에 새겨진 '芸臺篆'의 필법을 Fig. 3의 'B-3-1'의 인문과 '阮翁' 그리고 'B-3-b'의 인문과 '阮翁作'과 비교해보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운대(芸臺)는 완원의 명호이다[17].

### 3.1.5 <완당(阮堂)>

Fig. 2의 'B-4' <완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관에 김정희가 금강산에서 새겼다는 기록이 있고, 변관의 형식이 특이하며, 서인합일(書印合一)을 이룬 작품이기 때문이다.

인장을 분석했다. 첫째, 인문의 필법이다. 김정희는 평소 '반드시 방경(方勁)과 고拙(古拙)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는 서법 철학을 역설했다[18]. 등글게 새긴 '阮', 모지게 새긴 '堂'이 그것이다. 이런 필법은 제자 오규일이 새긴 인장 <완당예고>(Fig. 2의 'A')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둘째, 변관 분석이다. 먼저, Fig. 3 'B-4-1'의 우측, 일로향각(一爐香閣)의 내용과 필법이다. '香'은 김정희가 '香'의 본래 글자 '香'을 더 간략화해 새긴 것이

다. Fig. 3의 'B-4-1'의 우측, 'B-4-a', 'B-4-b'는 각각 김정희가 인장 <완당>의 변관에 새긴 '一爐香閣',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써주었다는 현관 일로향실(一爐香室), 김정희의 작품 계산무진(谿山無盡)이다. 세 작품의 장법과 필법이 비슷하다. 다음은 Fig. 3 'B-4-1'의 좌측, 변관 칠십이구초당작어금강산(七十二鷗草堂作於金剛山)의 내용과 필법이다. '七十二鷗草堂'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후 한강변에 살던 시절 '수많은 갈매기가 드나드는 초당에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썼던 명호이고, '作於金剛山'은 '금강산에서 새겼다'이다. 변관에 제작 시기의 언급은 없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김정희의 금강산행은 확인되었다.

이 인장의 변관을 확대 관찰하였다. 마치 붓으로 쓰듯이 전각도로 유려하게 새겼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김정희의 변관 필체는 타인이 모방하기 쉽지 않다. 앞 '2.2.2'항에서 언급한 '인문의 복제는 쉬워도 변관의 복제는 어렵다'[10]는 지표가 여기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김정희는 인장 <완당>을 통해 중국 등석여(鄧石如, 1743-1805)가 주창한 서인합일의 정신 서종인입인증서출(書從印入印從書出)을 추구했다. 즉, '서예와 전각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다. 김정희가 금강산에서 새긴 인장 <완당>은 예술적·학술적·전각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3.2 무변관 인장

### 3.2.1 <칠십이구초당(七十二鷗草堂)>

Fig. 2의 'C-1' 인장 <칠십이구초당>에는 변관이 없기에 인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역시 전체적으로 모진 가운데 부드러운 필체의 조화가 이채롭다. 도법은 주로 충도법을 사용했다. 이 인장에 사용된 필법과 장법 및 도법, 인장의 석질과 색깔, 인뉴에 새겨진 소나무와 초당이 Fig. 2의 'B-4' 인장 <완당>과 매우 흡사하다. 이 인장 역시 김정희가 새긴 것으로 추정하지만 변관이 없다.

참고로 Fig. 3의 'C-1', 'C-1-a', 'C-1-b'는 각각 김정희가 새긴 인장 <칠십이구초당>의 인영, 그의 작품 저하남서(褚河南書)로 시작하는 서론행서첩(書論行書帖)에 찍힌 인영 <칠십이구초당>, 김정희종가 전래인장 <삼십육구초당>의 인영이다. 새긴 작가는 알 수 없으나 세 인문의 필법이 비슷하다.

### 3.2.2 상하합체형 인장

Fig. 2의 'C-2'는 상하합체형 인장이다. 몸체가 둘, 인

면이 셋이다. 인장의 석질은 단단한 편이다. Fig. 3의 'C-2-1', 'C-2-2', 'C-2-3'의 인문은 각각 <소봉래학인(小蓬萊學人)>, <삼십육구초당(三十六鵠洲堂)>, <오산독화루(烏山讀書樓)>이다. 모두 김정희의 명호이다. 그런데 'C-2-3'의 인장 형태와 인문의 장법이 'C-2-a'의 김정희 종가 전래인장 <수재감상(隨齋鑒賞)>과 비슷하다.

### 3.2.3 <유어예(遊於藝)>, <고우노인(古嶠老人)>

Fig. 2의 'C-3' <유어예>, 'C-4' <고우노인>은 비록 변관은 없으나 잘 새겨진 전황석 계열의 상등품 인장이다. 필법이 방정하고 단아하면서도 부드럽다. '유어예'는 '작품을 통해 노닐며 해학이 넘치는 끼를 발산한다'이며, '고우노인'은 '조선에 사는 노인'의 의미이다. 김정희는 명호 고우산인(古嶠山人)을 쓰기도 했다[19]. 두 인장의 석질, 인문의 필법과 장법 및 도법이 제자 오규일이 새긴 Fig. 2의 'A' <완당예고>와 비슷하다.

### 3.2.4 <용정(龍丁)>

Fig. 2의 'D'와 'E-1' 모두 <용정>으로 인영만 보면 엇비슷하다. 'D'는 현재 인영만 남아있고, 'E-1'은 실제 인장도 존재한다. 그런데 'E-1'은 'D'의 인영을 본떠 만든 인장으로 실제 인장을 보면 조각하기 이를 데 없는 극하등급품이다. Fig. 3의 'E-1-1'은 Fig. 2 'E-1'의 실제 인장 <용정>을 확대한 것인데, 옥공예용 전동공구로 새길 때 나타나는 연속 무늬결이 수없이 확인되었다.(점선 부분)

예로부터 인장의 모각은 공인된 전각 학습 방법이었다. 모각의 기본 원칙은 원본과 똑같이 새겨야 했고, 모각 사실을 변관 또는 문서로 남겨야 했다. 하지만 Fig. 2의 'E-1' <용정>은 원본대로 새기지도 않았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제작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기에 변관을 새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인장이 문제를 야기한다.

### 3.2.5 <완당(阮堂)>, <김정희인(金正喜印)>, <보담재인(寶潭齋印)>, <동국유생(東國儒生)>

Fig. 2의 'E-2', 'E-3', 'E-4', 'E-5', 네 인장을 실제로 관찰해 보면 'E-1' <용정>과 비슷한 극하등급품 인장이다. 인영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다. 이들 인장에도 연속 무늬결이 나타난다. 모두 전동공구로만 새긴 듯하다. 이런 흔적은 전각가가 전각도로 새긴 인장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Fig. 3의 'E-2-1', 'E-3-1', 'E-4-1', 'E-5-1' 점선 부분 참고) 특히 Fig. 2의 'E-5'를 확대한 Fig. 3의 'E-5-1'(점선 부분)을 보면 인문 '東國儒生'의

'儒' 획을 새기다 말았다. 여기에도 전동공구가 사용되었다. 여기에 소개한 네 인장 모두 석질이 좋지 않은 경우 계열이었다. 이들의 제작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 수 없다. 만약 서화 위조 목적이었다면 사용 후 인장을 파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세간에 돌아다니며 고서화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추사 김정희 관련 인장에 대한 역학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전각예술의 우수성을 파악했고, 실제 인장 및 변관 유무의 중요성을 제시했고, 전각예술을 학술적으로 정의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고서화계의 질서 유지에 대한 이상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김정희의 친작 전각작품을 확인한 것, 그와 관련된 인장의 학술적 명칭을 구분하여 정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인장은 인간이 인증 수단의 징표로 사용되다가 점차 예술적 의미가 가미되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동양의 문인묵객들이 시서화일치를 최고의 경지로 추구했기 때문이다.

중국 스승 옹방강과 완원의 금석학적 안목을 이어받은 김정희가 전각예술에도 탁월한 족적을 남겼다. 청출어람의 자세로 시서화각일치(詩書畫刻一致)를 추구했다. 김정희는 당대 조선 최고 전각가이자 인뉴(인장 손잡이) 제작 전문가 오규일을 길러내면서 조선시대 전각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전개했다. 김정희에 의해 조선시대 전각예술이 독창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근래 추사 김정희가 재조명받고 있다. 서화 작품과 아울러 관련 인장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때맞춰 김정희 관련 실제 인장의 변관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장에 새겨진 변관을 통해 보았을 때, 유변관 인장 <길상여의관>, <장수청신지거>, <완당>은 김정희가 새긴 것으로 결론지었다.(Fig. 2의 'B-2', 'B-3', 'B-4' 참고) 당시 김정희의 전각예술은 스승 옹방강의 도법, 필법, 장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래 인면의 인문을 지우고 다시 새기는 경우 등 전각예술의 특성이 지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변수에 대한 기록이 아직 없다'는 전제하의 결론이다.

특히 붓으로 쓰듯이 전각도로 새긴 <길상여의관>의 변관 '勝蓮老人'의 필체는 김정희의 전성기 서법을 보는



듯했다. 인장 <완당>에 새겨진 변관 ‘一爐香閣’과 ‘七十二鷗草堂作於金剛山’은 ‘과연 명불허전 김정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김정희의 금강산행 시기에 대한 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김정희의 자각 전각작품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렇다. 당시 인장은 비교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새겼기 때문이고, 제자 오규일에게 전각을 지도하여 그가 인장 제작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정희가 전담 장황사(粧潢師) 유명훈(劉命勳, 생몰년 미상)을 두어 표구를 맡긴 것과 같다.

인장 <칠십이구초당>은 비록 변관은 없으나 인장의 석질과 형태, 인문의 필법과 장법 및 도법 등으로 보았을 때 김정희가 새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타 변관이 없는 상하 합체형 인장의 <소봉래학인> · <삼십육구초당> · <오산독화루> 그리고 <유어예>와 <고우산인> 모두 김정희가 즐겨 썼던 명호이거나 문구이다. 인장의 형태와 석질이 범상치 않고, 도법, 장법, 필법이 뛰어났다.

특히 ‘3.2.4’ 항의 <용정>(Fig. 2의 ‘E-1’)과 ‘3.2.5’ 항의 네 인장(Fig. 2의 ‘E-2’, ‘E-3’, ‘E-4’, ‘E-5’)은 모두 전각도가 아닌 연마공구로 새긴 경우로 제작 목적과 의도가 의심되는 인장들이다. 해박한 전각학 지식과 안목을 지닌 전문 감식가가 이런 인장과 인영이 서화에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가려야 하는 이유이다.

예로부터 모각은 공인된 인장 학습 방법의 하나였다. 모각의 기본 원칙은 대상과 똑같이 새기고 변관 또는 문헌에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례였다. 조선시대 고종 지시로 제작된 모각 인장이 그 예이다. 대다수 모각 인장에 변관은 없으나 국가 중요 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상 김정희 관련 인장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인장 연구의 중요성이다. 기존 선행 연구를 보면 거의 인보 및 인영 연구에 치중했다. 고서화감정 시 인영의 진위는 판단하지 않고 인영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된 인장이 없거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문인묵객들은 길어나 명언을 새긴 인장을 돌려쓰거나 모각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것이 전각예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서화의 진위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인장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둘째, 인장에 새긴 변관의 중요성이다. 실제 인장이 있더라도 변관이 없으면 작가와 제작의도를 알 수 없다. 제작 목적이 불분명한 인장일수록 변관을 남기지 않는다.

그만큼 변관의 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김정희 관련 인장의 학술적 명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김정희가 새긴 인장
- 김정희가 사용한 타인 제작 인장
- 김정희가 소장한 타인 제작 인장
- 김정희가 인지하지 못한 인장
- 기타 목적으로 제작된 인장

전각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한 분류한 방식으로 일반 인장 분류 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위 분류 중 ‘김정희가 인지하지 못한 인장’이란, 당대에 어떤 작가가 김정희에게 주기 위해 새겼으나 전달되지 못한 인장 또는 후대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새긴 인장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추사 인장’에 대한 학술적 정의도 제안하고자 한다. ‘추사 글씨’는 ‘추사가 쓴 글씨’를 말하듯이 ‘추사 인장’은 ‘추사가 새긴 인장’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새긴 인장은 그 사람의 인장이지 추사의 인장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세간에서 다른 작가의 인장을 추사 인장이 아니라거나 가짜 또는 위작이라고 하기에 덧붙이는 제안이다.

넷째, 전각예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전각예술을 쉬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부터 인장은 비교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제작해 주면 문인묵객들은 서화에 그 인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치 인장이 서화의 종속 예술인 양 인식되었다. 호사자들이 서화가 위주로 작품을 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기야 서화가 사용한 인장이 아니면 가짜 또는 위작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전각예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다섯째, 당대 모각한 인장 또는 후대 제작된 인장일지라도 제작 목적과 의도가 확실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 엄연한 전각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장 그 자체가 독립된 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인장의 사용자(또는 소유자) 입장이 아닌 인장 제작가의 입장에서 서화 속 인영 또는 실제 인장을 대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한 내용이 향후 김정희 관련 인장의 진위 및 우열 판단의 주요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지하듯이 중국 명나라 문평 이후 인장이 예술로 승화되어 지금의 전각예술로 자리 잡으면서 옛 선비들은 인장을 문방사우의 하나로 여기며 완상하고 즐겼다. 명품 옥 인장은 같은 크기의 금보다 비싼 예도 있다. 아까워 새기지 않은 인장도 많고 서화에 쓰이지 않는 인장도 많다. 근래 중국 제백석(齊白石, 1863-1957)이 새긴 인장

이 역대를 호가하기도 한다.

김정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50여 개의 명호를 쓰며 세계 독보적 추사체를 완성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한 인장이 수 백과라고 전하지만 김정희종가 전래인장은 30여 과에 불과하다. 두 차례의 유배 생활 등 역경 속에서 많은 인장이 흩어진 듯하다. 작금에 그런 인장들이 세간에 더러 나온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인장들이 그 일부이다. 잘못된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사용된 인장이나 인영을 감별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본 논문의 연구 분석 결과, 김정희는 중국 스승 옹방강을 좇아 직접 각을 했고, 제자 오규일에게 전각의 법도를 전수해 조선 최고의 전각가로 양성하기도 했으며, 파격적인 서법을 구사했던 김정희가 서인합일(書印合一)의 정신으로 조선 전각예술의 르네상스시대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김정희 관련 실제 인장과 변관이 있었기에 분석할 수 있었다.

## REFERENCES

- [1] J. H. Choi. (2019). Fusion Factor Analysis of Seal Wandangyego Engraved by Oh Gyuil. *Journal of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114.  
DOI : 10.22156/CS4SMB.2019.9.11.110
- [2] Naver. (2020. 4. 22). Naver Korean Dictionary. Seal.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967800>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4. 2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verview of the Korean seal*.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inj/injang\\_sub02.jsp&pageNo=4\\_3\\_1\\_1](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inj/injang_sub02.jsp&pageNo=4_3_1_1)
- [4] D. C. Lee. (2008). *Chinsang*. Seoul : Dongaillbosa, 3-9.
- [5] B. D. Xu. (2004). *Goseohwa gamjeong gaelon* (N. B. Gwak, Trans.). Seoul : Dongmunson, 93-107.
- [6] T. H. Han. (2003). *Zhong guo zhuan ke da ci dian*. Shanghai : Shang hai ci shu chu ban she, 32.
- [7] H. M. Zhao. (2004). *Tol ui mihak chongak* (Y. S. Chon & U. S. So, Trans.). Seoul : Hakkobang, 320.
- [8] J. H. Choi. (1992). *A study of art of seal engraving by Qi Baishi*. Taipei : Wenshizhe Publishing House, 82-97.
- [9]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0. 4. 22).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Bosodang-Injon*.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3437>
- [10] J. H. Choi. (1990, November 16).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professor B. Y. Wang's lecture* [Record notebook].
- [11] Gwachon Culture Center. (2005). *Worn out 1000 brush and 10 ink stone*. [Brochure]. Gwachon : Gwachon Culture Center, 25.
- [12]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00). *ITKC DB*. Imhapilgi, 3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2A\\_0400\\_010\\_0160\\_2007\\_008\\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2A_0400_010_0160_2007_008_XML)
- [13] P. M. Im. (2012). *Kumgangsán*. Seoul : Yorhwadang, 112-25.
- [14] B. Y. Wang. (1996). *Zhuankeyishu*. Taipei : Hanguang, 46.
- [15]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 *A great synthesis of art and scholarship : painting and calligraphy of Kim Jeong-hui*. Seoul : National Museum of Korea, 304-7.
- [16] S. C. O. (1937). *Kunyokinsu*. [Self-edit]. Unknown : Unknown, 248-55.  
[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OLDP1196001070\\_4&resultPage=](http://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OLDP1196001070_4&resultPage=)
- [17] U. S. Jang. (1987). *Banlongheon Jinjanganbo*. Seoul : Hongilmunhwasa, 60-291.
- [18]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988). *ITKC DB*. Wandangieonjib, 7.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614A\\_0080\\_080\\_0100\\_2000\\_002\\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614A_0080_080_0100_2000_002_XML)
- [19] J. H. Choi. (2012). *Chusa myongho chorom salda*. Gwangju : Amijae, 289.

## 최 준 호(Joon-Ho Choi)

[정회원]



- 1980년 2월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학사)
- 1985년 9월 : 홍대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1992년 1월 : 국립대만사범대 미술대학원(예술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동양예술, 전각학, 추사학
- E-Mail : ds4bed@wangju.ac.kr